

거리두기 4단계 공공시설 이용 제한

전주시,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일시중단·제한운영 등 시행 화산체육관·완산수영장·실내체육시설·자연생태학습원 등 운영 중단

전주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실내체육시설이 문을 닫는 등 공공시설 이용이 제한된다. 전주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짐에 따라 시민안전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주요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일시중단 및 제한운영 등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화산체육관과 완산수영장을 비롯한 실내체육시설, 자연생태학습원(실외) 등이 운영이 중단된다. 시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은 30% 인원 제한과 오후 6시까지 단축 운영 등

의 조건으로 운영되며, 한옥마을 내 문화시설들도 공연·행사 등은 금지되지만 전시 관람 및 열람은 가능하다. 이에 앞서 전주시는 최근 하루에 2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27일 0시부터 오는 9월 9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올렸다. 전주시 관계자는 "시민들께서는 시설 방문 전 세부이용안내 사항을 해당 시설에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길 당부한다"면서 "전주시는 코로나 4단계 격

상으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어려운 시기임을 감안 시민께서 코로나 4단계 기간 방역에 협조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시설 운영제한 등 각 시설별 이용에 대한 사항은 ▲지역아동센터=북지환경국(063-281-2439) ▲체력공원=문화관광체육국(063-281-2681) ▲시립도서관(063-230-1810) ▲전주시 대표 콜센터(063-222-1000)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윤상기자

전주시, 행복한 반려문화 조성 '앞장'

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 마이크로칩 지원·찾아가는 동물등록서비스 시행

전주시가 행복한 반려문화 만들기 위해 찾아가는 동물등록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동물등록제 내실화 및 내장형 동물등록 확대를 위해 이달부터 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 마이크로칩 지원

사업과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주시 수의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시는 동물등록에 필요한 내장칩 기술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장칩 지원사업은 반려인이 동물등록대행 동

물병원을 방문해 시술비 1만 원만 부담하면 내장형 등록이 가능하며, 선착순 1000마리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또 오는 9월 5일과 12일 문화대공원과 신성공원 등 반려인과 반려견이 즐겨찾는 6곳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동물등록서비스도 전개한다. 시는 평균 3만 원 정도 소요되는 내장형 동물등록 평균비용이 자원사업을 통해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동물등록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달 19일부터 약 한 달간 동물등록제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했다. 그 결과 동물등록 건수가 자진신고기간 운영전과 비교해 2배 이상(동물보호관리시스템 통계기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는 전주시 수의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동물등록에 필요한 내장칩 시술 등을 지원한다. /김윤상기자

전주종합경기장 내 임시선별진료소 설치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가 원활한 진단검사를 위해 선별진료소를 추가로 운영한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6일 전주종합경기장 내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시작

했다. 시는 그동안 덕진보건소와 화산체육관 두 곳에서 덕진·화산선별진료소를 운영해왔지만 최근 확진자와 접촉자가 늘면서 하루 최대 진단검사수가 3639명까지 급증하자 임시선별진료소를 추가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종합경기장 임시선별진료소의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선별진료소에서는 증상 유무나 역학적 연관성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그동안 평일에만 운영해왔던 화산선별진료소도 지난 21일부터 주말에도 운영하고 있다. 화산선별진료소의 운영시간은 평일, 주말 관계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김윤상기자

전주 미나리 활용 '전주 미나리酒' 출시

전주농기센터, 옛촌도가 협업 신제품 막걸리

해독작용과 숙취 해소에 좋은 전주 미나리를 원료로 사용한 막걸리가 나온다. 전주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는 팔복동 소재 막걸리 업체인 '옛촌도가' (대표 주민선)와 협업으로 전주 미나리를 소재로 한 신제품 막걸리인 '전주 미(美)나리酒(주)'를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전주가 막걸리 소비가 많은 지역이라는 점에 착안해 전주 농민의 자부심인 미나리를 활용한 막걸리 개발의 필요성에 따라 신제품 개발에 나서 지역 특산주인 '전주 미나리酒'를 출시하게 됐다. 이 막걸리는 미나리 착즙에 인공 감미료를 넣지 않은 천연 막걸리로, 음주 후 부작용과 숙취를 방지하면서 막걸리의 트림 현상도 거의 없는 것이 장점이다. 시는 향후 미나리막걸리의 고급화를 위해 제품 용기와 디자인도 손을 볼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가정에서 물만 부으면 쉽게 막걸리를 만들 수 있는 막걸리 파우더와 미나리 음료도 개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미나리막걸리를 전주를 대표하는 막걸리로 만들기 위해 지난 4월 옛촌도가와 미나리막걸리를 개발하기로 협의했다. 이후 시와 옛촌도가는 분말, 착즙, 동결 건조 등 다양한 형태와 적정 미나리 함량을 통한 최적의 막걸리 생산을 위해 1, 2차 시음회 및 성분 검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미나리는 강력한 해독 효능이 있어 숙취도 빨리 회복될 뿐만 아니라,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대표적 알칼리성 식품으로 미세 먼지나 산성화된 몸을 정화시키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베타카로틴 함량이 높아 시력 보호 및 야맹증 완화에도 효과적이며, 신체 면역력 증가에도 도움을 주는 등 다양한 효능을 갖고 있어 현대인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 주민선 '옛촌도가' 대표는 "전주는 막걸리가 잘 발달된 도시이자 음식문화 선도 도시로서 꼭 와보고 싶은 곳으로 외지인들이 꼽고 있다"면서 "이번 '전주미나리酒' 출시로 전주미나리와 함께 전주막걸리의 다양성이 많은 막걸리 애호가들에게 좀 더 부각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황권주 전주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전주미나리酒' 개발을 위해 미나리에 대한 시료분석을 통해 비타민A의 전구체로서 항산화물질인 베타카로틴성분이 대량으로 함유돼있고, 철분, 칼슘, 단백질 등 다양한 유효성분이 들어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향후 '전주미나리酒'가 건강한 천연막걸리로서의 널리 사랑 받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혁신도시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첫 삽'

전주시, 착공식 갖고 본격 추진... 내년 9월까지 수영장·체육관 등 갖춰 조성

전주 혁신도시의 대표 생활체육공간이 될 다목적체육센터 건립공사가 착수됐다. 전주시는 26일 전북혁신도시 중동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 국주영은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도시 다목적체육센터' 착공식을 가졌다. 혁신도시 주민들의 체육복지와 삶의 질을 높일 다목적체육센터는 내년 9월까지 중동 852번지 일원에 국비 30억 원 등 총 11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지상1층, 지상2층에 연면적 3909㎡(1184평)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지상 1층에는 25m 6레인 수영장과 함께 배구와 농구, 배드민턴 등을 즐길 수 있는 체육관이 들어서게 된다. 지상 2층에는 다목적 체육공간과 야외 테라스가 생긴다.



전주시는 26일 전북혁신도시 중동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 국주영은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도시 다목적체육센터' 착공식을 가졌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해 5월 체육센터 신축을 위한 설계공모를 통해 차량과 보행자의 진출입이 편리하고 공간 배치가 조화로운 설계안을 선정해 올해 5월 최종 설계를 마쳤다. 시는 다목적체육센터가 건립되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및 가족

등 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체육문화시설이자 주민들의 상상과 화합을 위한 사랑방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코로나 이후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나갈 혁신도시 다목적체육센터가 들어서면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일상에서 스포츠를 즐기고,

건강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친화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시 곳곳에 시민들을 위한 체육시설과 문화공간, 보육공간 등을 확충해서 사람들이 살고 싶은 도시, 머물고 싶은 도시 전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상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